

# YUYE

by O Sang-won 1957 (publication: see last page)

96 오상원

## 유 예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  
는 것이다. 손과 발이凍령어리처럼 차다. 허영계 흥백마다 사리가 않은 길  
은 울 속, 서너 길 높이에 풍나무로 막은 문틀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  
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  
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  
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  
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농  
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뱃속까지 얼음  
이 박인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화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  
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지  
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계급을 잊아치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갖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마발총구를 등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뒤편을 끼고 이 울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97 예 유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두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  
다. 몇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총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뚜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훔탕 빨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  
른다(벗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삼이 빨가니 얼어서 권 두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이안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텅고 추위에 손을 비  
벼가며 방안으로 돌아들 갈 테지. 몇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맡아 피우고 가지개를 한 것이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  
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권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물러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퀴퀴한 냄새  
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복으로 복으로 손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그  
가 인술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감속이 파고들어갔다. 자주 본대와외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소대원의 얼굴은 무전사에게로만 쏠렸다. 후퇴다! 이미 길은 모  
두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적의 어느 면을 돌고 남하할 것인가? 자주 소  
전투가 벌어졌다.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적과의  
근접을 피하면서 산으로 타고 올랐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가  
는 소대원, 침침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터듬으며 온  
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연이어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  
무릎까지 덮이는 눈 속을 해마다 방향을 잃은 그들은 마침내 고향에 산길을

다듬어 내려와서 가까운 그 어느 마을로 파고들어갔다. 텅 빈 마을, 집집마다 산산히 흩어진 채 눈 속에 호젓이 파묻혀 있다. 적이 들어온 흔적도 지 나간 흔적도 없다. 되었다. 소대원들은 뽕뽕이 헤쳐져서 먹을 것을 살살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다. 겨우 얼어붙진 감자 한 자루뿐, 이빨에 서벅서벅 얼음이 마주치는 간자 알맹이를 씹었다. 모두 기운이 지쳐 쓰러졌다. 일시에 피곤과 허기가 남(鎗)덩어리처럼 내린다. 발가락마다 얼음이 박혔다. 눈 보라는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밤이 다가왔다. 산속의 밤은 급히 내린다. 선 임하사만이 피로를 씹어가며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밖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뿐, 선임하사도 잠시 눈을 붙였다. 마치 기습이라 도 있을 듯한 밤이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아침이 왔다. 또 눈과 기아와 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연 과의 싸움에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소대장님, 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고 는 속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그는 그 곁에 무릎을 꿇 고 그 싸늘한 마지막 시선을 지켰다. 포켓을 찾아 소지품을 더듬는 그의 손 은 잠시 죽어간 부하의 시체보다도 더 차가웠다. 소대장님…… 우리러 쳐다 보는 마지막 부하의 그 눈빛, 적막을 더듬어가며 죽음을 재는 그 눈은 얼음 장보다도 더 차가운 그 무엇이 있었다.

“소대장님…… 복한 출신입니다. 홀몸입니다. 남한에는…… 누구도 없습 니다. 이것이 이복 계 고향 주소입니다.”

무거운 기습마다 덮여져서 떨어졌다. 그것을 받아들던 그의 손, 부하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인제 남은 것은 그를 포함하여 여섯 명뿐.

눈 속에 쓰러져 넘어진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들은 다시 눈 속을 헤쳐다. 그의 머릿속에 점점 불인이 다가왔다. 이윽고 X X지점까지 왔을 때다. 산줄기는 급격히 부드러워져 이윽고 쭉 평지로 바뀌었다. 대로(大路) 지형(地形)과 적정(敵情)을 탐지하려 내려갔던 선임하사가 급히 달려 올

라왔다. 노상에는 무수히 말굽 자리와 마차의 수레바퀴, 그리고 발자국 자 리가 있다는 것이다. 선임하사의 손에는 말뚝이 하나 쥐어져 있다. 능히 그 것은 손 힘으로 부스르뜨릴 수 있었다. 그들이 지나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둠을 이용하여 도 로를 횡단하고 다시 앞에 바라보이는 산줄기를 타고 오를 수밖에 없다.

밤이 왔다.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낮은 지대를 선택 하고 대로에 연한 개천 독을 이용하였다. 무난히 대로를 횡단하였다. 눈두 링에 내려서자 재빠르게 엄폐물을 이용해가며 걸음을 다그쳤다. 인제 앞산 밑까지는 불과 이백미터밖에 안된다. 그들은 약간의 인도감을 느끼고 걸음 을 늦추었다.

그때다. 돌연 일발의 총성과 더불어 한마디 비명을 남기고 누가 쓰러졌 다. 모두 꺾 는 속에 엎드렸다.

일순간이 지났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 그 방향을 종점을 수가 없다. 그가 적정을 살피려 고개를 드는 순간 또 총알이 날아왔 다. 측면에서부터다. 모두 웅전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대로 쪽으로 각도를 돌렸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눈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적 쪽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언제껏 있을 수도 없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환눈 위다. 그들은 산기슭까지 필사적으로 포복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총알은 비오듯 집중된다. 비명과 더불어 소대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맘이 비오듯 흐른다. 그는 눈을 꺾 감 은 채 포복을 계속하였다. 의식이 다차꾸 흐른다. 산기슭 환눈 속에 덮인 관목숲이 눈앞에서 뿌여니 흩어진다. 총성은 약간 잦아졌다. 산기슭으로 타 고 오르는 순간 선임하사가 쓰러졌다. 그는 선임하사를 부축하고 팔며 산속 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산속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청신을 잃고 쓰러져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서였다.

몸이 춥다. 몸을 약간 꿈틀거리본다. 전 근육이 추위에 마비되어 감각을 잃은 것만 같다. 인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쿵쾅한 냄새가 코를 찌른

다. 어렴풋이 눈 속에 부서지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시간이 된 모양이다. 몸을 일으키려고 움직거리른다. 잠시 몽롱한 시각이 흐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몹시 춥다. 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 몽롱하게 정신이 흩어진다.

전공 과목은? 왜 동무는 법과를 선택했었소? 아렸을 때부터 동무는 출신계급적인 인습관념에 젖어 있었소. 그것을 버리시오.

나는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소, 나는 동무를 어느 데라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소. 문지방으로 스미어오는 가는 실바람에 스텔 때마다 화롯불이 붉게 번져어갔다.

나는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소. 차, 담배를 태우시오.

꾸부리진 부젓가락으로 채 위를 헤칠 때마다 더욱 붉게 불꽃이 번진다.

그렇다면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또 이 세상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요.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 동무는 그렇게 내 얼굴을 차갑게 쳐다보고만 있소?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 알겠소. 나는 동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으로 동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유감이요. 주고받던 대화, 조그만 방안, 깨어진 질화로가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는 무겁게 몸을 뒤돌았다. 희미하게 또 과거가 이어온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서였다. 산속의 아침은 아름답다. 눈 속에 덮인 산속의 새벽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해가 적이 높아졌을 때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선임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쪽 다리를 꼭 움켜쥐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검붉은 피가 오른편 어깨줄자와 등허리에 질개 얼룩져 있다. 그는 굼이 선임하사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조용히 눈을 뜬다. 그리고 소대장을 보자 쓸쓸히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선임하사를 꼭 그리안고 뺨을 비비대었다. 단둘뿐! 인제는 단둘이 남았을 뿐이었다.

“소대장님, 인제는 제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랜 군대생활에 이겨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선임하사, 그는 이차대전 시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 종군하다 북지(北支)로 이동, 일본 항복과 더불어 포로생활 이개월을 거쳐 팔로군(八路軍), 국부군, 시조(時潮)가 변전(變轉)되는 대로 이역(異域)을 표류하다가 국으로 돌아와 다시 군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군대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였다.

“사람은 서로 죽어게끔 마련이요.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확실해온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오? 난 전투가 제일 재미있소. 전투가 일어난다면 호환이 빠차고 내가 겨는 총구에 적의 심장이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그 순간 역사가 조각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별게 아니라 곧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태도였다. 이것뿐이다. 인제 그는 총에 맞았다. 차기 차례가 된 것을 알 뿐이다.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을 타고 선임하사의 음성 이 떠오른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고 꿈지럭거리다가 그대로 펄쩍 쓰러졌다. 바쁜 팔 위에 경련이 일어난 것이다. 헛바닥을 깨물고 고통의 일순을 넘겼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선임하사의 생각이 이어온다.

“소대장님, 제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을 끝낸 선임하사는 햇볕이 조용히 깃드는 양지쪽으로 기어가서 늪은 떠간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햇볕을 받아가며 조용히 내리감은 눈, 비에도, 슬픔도, 고독도, 그 어느 하나도 없다. 다만 눈 속에 덮인 산속의 적막, 이것이 그의 얼굴 위에 내릴 뿐이다.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점점 비스듬히 휘물어지다가 툭씩 쓰러졌다. 그는 굼이 다가가서 선임하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그 순간 눈을 가늘게 찻다. 입가에 미소가 가벼이 흐른다. 햇볕이 따스히 그 입가의 미소를 지킨다.

“이대로……”

눈을 감았다. 잠시 가는 숨결이 중단되며 이어갔다.

온다.

동무…… 총살, 이 두 마다가 그의 머릿속에 못박혔다. 눈앞이 어질한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기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텅수룩하고 아연 얼굴에 내의 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을 동위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의의가 있소?”

그 위엄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와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요, 내가 한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자카운 음성이었다.

“중소.”

정밀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독진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뿜는 권이요, 그러럼 가고 싶어하던 권이니 유감은 없을 것이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눈이 총을 쏘았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동위로 받으며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다. 인제 몇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도 흠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꼭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려 가고 있는 것이다. 썩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빛발같이 총알이 쏟아져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맑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폭 고개를 묻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거는다. 또 이 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다자구 쏟아지는 의식, 몸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 작은 전후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유박하여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당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폭 쓰러졌다. 의식이 압박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구석이 쿵쿵 켈리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땡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뒤흘이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각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감붉은 피가 흥혈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얗나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간다. 방안이다. 방안에 들춰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후 몇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열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인가?…… 몽롱한 의식의 착오 맞인가. 확실히 구뎡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향을 지르며 독촉하

고 있었다. 한단 한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익센 손이끼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확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서었다.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함박 싸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나…….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뿜는 길ियो,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눈 위에 발자국이 파룬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잠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걸음 한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총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눈이 회색빛으로 풀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터지. 눈을 땀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멧분 후면 화투불어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맡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눈 위다. 햇빛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한국일보 1933. 1. 1;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66>

han-guk hyeondae daepyo soseol seon 8  
Editors Lim Hyeong-tae et al.  
Seoul: Changjakgwa Bi-pyeongsa, 1996